100년 만의 사리 환수…불교·정부 협력 '결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회암사지서 사리 이운 행사

해외 반출된 후 100년 만에
3여래 2조사 사리 '환지본처'
대통령 부부 참석, 함께 축하

진우 스님 취임 600일 기념도
500여 청년들과 108배 정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3여래 2조사 사리 이운 후 부처님 전에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다.

양주=윤호섭, 김내영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부처님과 선사들의 사리가 10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4월 18일 보스턴미술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3여래 2조사 사리(가섭여래·정광여래·석가여래·지공 선사·나옹 선사)가 원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온 것.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5월 19일 양주 회암사지 일원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 삼대화상은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중흥의 꽃을 피운 지공·나옹·무학 스님을 의미한다. 다례재는 사리의 환지본처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 6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봉선사 대중은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특설무대에 설치된 법단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사리를 이운했다. 100년 만의 경사지만 예경의 대상인 사리를 이운하는 만큼 호산 스님의 얼굴에는 경건함이 가득했다. 행사의 격에 맞춰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직접 신중작법을 올렸다.

이운을 마친 뒤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대학생·청소년 500여 명이 무대 앞에서 함께 108배 정진에 나섰다. 총무원장 취임 첫날부터 매일 108배 정진을 하며 청년세대와 소통해온 진우 스님의 취임 600일을 맞아 기념비적인 행사가 더해진 것. 진우 스님과 500여 청년세대의 합동 108배 정진은 처음이다. 특히 108배 정진에는 신심 깊은 불자로 잘 알려진 이상호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제법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에도 진우 스님과 청년세대는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따라 불교중흥을 염원하며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다.

이어 펼쳐진 삼대화상 다례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리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보스턴미술관과의 사리구 반환 협상은 4차까지 이어졌지만 2013년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하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보스턴미술관이 지난 2월 성물인 사리는 조계종에 기증하고, 사리구는 국가유산청이 대여해 전시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불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큰 환수불사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환수를 이끈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잠시 외유를 하셨다 돌아오신 3여래 2조사의 불조사리를 오늘 비로소 사부대중과 함께 장엄하고 거룩하게 봉안할 수 있어서 정말 환희롭고 환희롭다"며 "이 벅찬 감동을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법화경〉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공·나옹 선사와 회암사의 의미를 짚은 진우 스님은 사리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를 '공덕주'라고 표현하고 회암사지 복원불사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영부인께서 사리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역사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첨병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곳 회암사에 세계적인 선명상센터를 건립하여 회암사 역사유물 관람과 함께 한국의 선명상을 체험하게 하여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찾게 되는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불조사리가 돌아온 것에 기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힘들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 봉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증명법사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부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무엇보다 사리 반환 논의 재개의 물꼬를 튼 김건희 여사를 '대(大)공덕주'로 상찬하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다례재에서 사부대중은 법단에 108잔의 차공양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며 불교중흥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선조들의 원력을 기렸다. 또 장사익과 JH콰이어의 축가, 청년세대를 위한 상월합창단과 상월 비보이 이에이트, 래퍼 슈퍼비의 문화공연을 펼쳐 불조사리의 환지본처를 축하했다.

다례재에는 두산 일면 대종사를 비롯한 조계종 원로위원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양주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강수현 양주시장 등 사부대중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조사리를 법단으로 이운하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대중.



행사장에 들어서는 진우 스님과 대통령 부부. 사리 환수는 정부와 불교계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취임 후 매일 108배 정진을 하는 진우 스님은 이날 회암사지에서 108배를 올렸다.



대학생 · 청소년 불자 500여 명은 진우 스님을 따라 108배 정진에 동참했다.



다례재에는 사부대중 40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 100개 50,000원
백중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할인가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할인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